국제등록번호 : 부산-08-0057 국내신고번호 : 부산-부산진-08-0018 법인등록번호 180111-0807983
좋은 인연 좋은 만남
(주)삼호결혼그룹
(구. 행복만들기) 베트남, 필리핀, 네팔, 우즈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74(노형동 3층) TEL. 064-751-8588, 무료전화 080-752-1004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 기사제보(064)750-2214 | 구독(064)750-2333 | 광고(064)750-2828 | 2013년 6월 3일 월요일(음력 4월 25일) HALLAILBO 제7340호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MG 하나새마을금고
본 점 (서사로) 753-8080 | 중앙지점(연북로) 745-3080
건입지점 (산지로) 757-3080 | 정관장홍삼서사라점 751-2304

제주밭담 '호평' 세계농업유산 '성큼'

일본국제회의서 공식 발표… 연내 등재여부 결정
전문가들 "농업유산 모델 가능성"… 보완도 주문
FAO 어제 제주방문·한중일워크숍 8월 제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세계농업유산등재TF팀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가나자와시에서 개최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회의(포럼)와 한·중·일 워크숍에 공식 참석,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시영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를 추진중인 '제주밭담'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이 이어졌다. 제주밭담이 서류심사와 실사, 그리고 국제기구가 자문·요청한 후속 보완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와관련 2일부터 이틀간 FAO의 파비즈 코하칸(사진)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의 메리 제인 델라크루스 기술담당이 제주를 방문하며 오는 8월에는 제주의 공식 제안으로 세계농업유산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세계농업유산 워크숍이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세계농업유산등재TF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완도군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서 개최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회의(포럼)에 공식 참석,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문화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유산자원 국제워크숍에도 참석,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제주밭담을 주제로 공식 발표했다.

FAO와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일 워크숍 리더, 그리고 유엔(UN)대학 전문가들은 제주밭담에 대해 "훌륭하다",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세계농업유산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제주를 한국의 농업유산 모델로 하면 더 발전이 있을 것", "논농업 위주가 아닌 (세계농업유산으로서)제주밭담의 발상의 전환이 매우 흥미롭다"는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국제 전문가들은 아울러 '제주밭담'의 경우 농업시스템과 경관뿐만 아니라 문화, 생물다양성, 자연·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세트'로 조합하는 보완이 이뤄진다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실사에 앞서 후속 보완이 시급해졌다.

이번 국제포럼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전문가들의 호평을 계기로 제주밭담과 완도 구들장논 등 국가농업유산 두개 지역을 올해안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 세계농업유산등재TF팀은 "국제 전문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주문한 보완을 거쳐 실사에 완벽하게 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이시카와현=강시영기자

글로벌포럼 도약 가능성 열었다

제주포럼 폐막… 47개국 3600명 참가 사상 최대 규모

'동네포럼'에서 '글로벌포럼'으로 도약을 다짐했던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이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1일 폐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기관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올해 제주포럼은 한·중·일 정권교체를 맞아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내걸고 외교통상부 등 23개 기관이 마련한 평화, 경제·경영, 환경·지역개발 등을 6개 분야 5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현직 고위 관료, 학자, 기업인 등 47개국 3665명이 참가, 지난해 7회 때 36개국 3100명보다 크게 늘어나 종합포럼으로서 위상을 키웠다.

이날 폐막에 앞서 열린 이번 제주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실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특별세션에서 로저스 회장은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향후 유망 투자산업으로 농업분야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로저스 회장은 아시아지역의 강력한 투자처로 중국을 추천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로저스 회장은 남북한이 4~6년 내 통일이 될 것이며 통일 후 한국은 대단한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포럼의 규모화를 위해 동시 개최한 '제주물세계포럼'에서는 '물의 보전과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고부가가치 자원인 제주지하수의 보전전력과 더불어 산업적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제주헬스케어타운 운영전략' 세션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성공을 위해 R&D(연구개발)시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위영석기자 yswi@ihalla.com

지난 1·2일 사려니숲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도민·관광객 등 모두 7000여명이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강희만기자

주말 사려니숲 탐방객 출렁

토·일 7000여명 찾아

주말·휴일을 맞아 사려니숲은 '에코 힐링'체험을 위해 몰려든 탐방객들로 출렁였다.

지난 1·2일 사려니숲에는 분주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으려는 도민·관광객 모두 7000여명이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특히 휴일인 2일 사려니숲을 찾은 탐방객들은 신록의 싱그러움을 한껏 만끽했다. >>관련기사 5면

짚신체험, 새도로명주소로 사랑의 엽서 띄우기, 소원쓰기 등 체험코너도 성황을 이뤘다.

가족, 부부, 연인, 친목, 동호회, 동문 등 각양각색의 탐방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사랑의 엽서를 띄우고 소원을 빌며 자연이 주는 힐링 외 또다른 마음의 '힐링'을 누렸다. 자식의 취직을 기원하고, 졸업을 축하하며, 태어날 아이의 건강과 사업 번창을 소망하는 사람 등 모두들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안전을 챙기며 '정'을 나눴다. 사려니숲길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손글씨로 쓰는 '사랑의 엽서'쓰기 체험은 이메일 등 컴퓨터·휴대전화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행사'는 짚신·사랑의 엽서쓰기·소원쓰기 체험행사 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8일), 사려니숲속 명상체험(토·일요일 오후 1, 2, 3시부터 각각 10~20분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오은지기자

올해 노지감귤 53만2000톤 내외 생산

1차 생산예상량 관측 결과 지난해보다 감소

올해 실시한 1차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 결과 53만2000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차 예상량 55만6000톤에 비해 2만4000톤이 줄어든 것이다.

감귤관측조사위·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6일부터 15일간 도내 458개소에서 실시한 올해 1차 생산예상량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화엽비(묵은잎 1개당 꽃의 비율)의 도전체 평균은 평년 0.82개보다 0.01개 적게 조사됐으며 지난해 대비 84.4%, 2011년 대비 83.5%, 평년 대비 98.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남지역의 화엽비는 0.88로 산북지역보다 0.14 많아 산남지역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전체적인 생산예상량은 평년수준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개화상황은 지난해 착과량과 나무별 세력의 차이에 따라 과수원별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앞으로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의 열매솎기, 장마대비 배수로 정비, 토양피복재배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 실천이 필요하다"며 "열매가 적게 달린 나무는 여름순 솎기와 내년도 열매 달릴 가지 확보를 위한 전정 등 여름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농기원은 오는 8월 하순 감귤 착과상황을 조사 후 2차 감귤 생산예상량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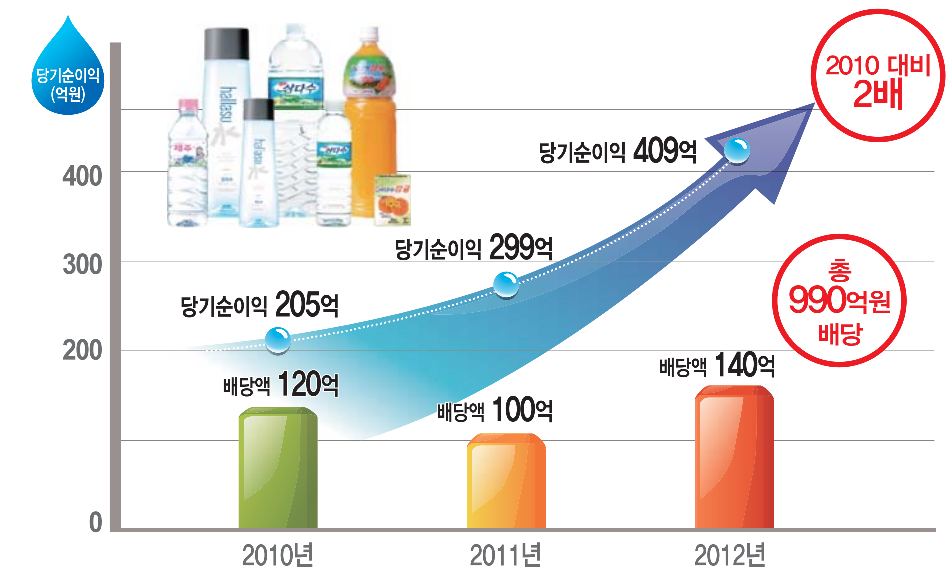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 5월 발표된 1차 생산예상량 관측조사 결과는 55만6000톤, 2차(8월) 결과는 56만톤, 3차(11월) 결과는 56만4000톤이었으며 실생산량은 55만9000톤이었다. 문의 760-7552.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우리집 다음으로 맛있는
양평해장국
5월 가정의 달 행사
신제주점 745-2992
신제주 펄호텔 뒷편 (주차 30대 가능)
4인가족 동반 식사시
※가족사진 무료 촬영권을 드립니다※
(300매 소진시 까지)

영업시간 : 새벽 4시 ~ 오후 9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를 알려드립니다.



당기순이익 총 1,908억원 중 1,095억원(57%)
도민 숙원사업 등 도민을 위해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배당 : 990억원
· 기부금 등 나눔경영 실천 : 105억원

(주)농심과 삼다수 판매 불공정(종속)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 1998년 ~ 2012년 (15년간) 도외 시장을 독점해오던 ㈜농심과 계약 종료
➡ 일반 도·소매점(신규 유통사업자) + 대형마트, SSM(개발공사 직접 유통)
· 개발공사 직공급을 통한 이익극대화 도모

(주)농심이 등록 소유하던 삼다수 관련 상표권(3종)을 되찾았습니다
· ㈜농심 등록 소유 : "농심삼다수","농심삼다","농심삼다도" 상표권 말소
➡ "제주삼다수" 상표권 등록 신청

삼다수 물류(수송) 체계를 개편하여 도내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전국 통합권역으로 1개사 선정, 도내 업체 참여율 15% 이하(하도급 형식)
➡ 3개 권역 분산, 지역의무공동도급 (도내 8개업체 참여, 40~49% 지분 확보)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과거 임의 채용하여 일정기간(2년) 경과 후 기능직 이상 정규직 전환
➡ 기능직 이상 정규직 완전공개경쟁채용(61명)

삼다수 브랜드 가치가 6단계 상승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 : 2012년 24위
➡ 2013년 1분기 18위 (6단계 상승)

홍보 및 전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관광객,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

당기순이익 2년간 2배 성장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매출액	1,336	1,617	1,659
당기순이익	205	299	409

(단위:억원)

한라수(Hallasu)를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 병 디자인 개발 : 유리병 2종, PET 3종
· 판매 : 고급호텔,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워터바, 해외수출 등 차별화
·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상 (2013독일) 수상

삼다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시장 확대 : 2012년 7개국 3,600톤 ➡ 2013년 14개국 23,000톤
· 수출 부진업체 정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

원부자재 구매 방법을 개선하여 원가절감 하였습니다
· 소수 업체 제한경쟁 입찰 ➡ 다수 업체 완전경쟁입찰 (46억원 원가절감)

변화와 혁신 경영결과, 외부 평가는 이렇습니다
2011년 · 경영품질대상(지식경영부문) 수상 (한국품질경영학회)
·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1위 선정 (GWP Korea)
2012년 ·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 수상 (지식경제부, 중앙일보)
· 소비자문화대상 (환경친화부문) 수상 (㈔한국소비문화학회)
2013년 · 한국재능나눔대상 수상 (중소기업청, ㈔한국재능기부협회)
·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지식경제부, 한국윤리경영학회)
·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레드닷 어워즈)
· 브랜드 혁신 경영자 대상 수상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대한민국 평화대상 수상 (여성가족부, ㈔대한민국가족지킴이)